

##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대응전략

윤소연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 생활인구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발굴 필요
  - 행정안전부·통계청은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함
  -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의 속성과 소비활동 정보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음
  - 유동적으로 변하는 생활인구의 특성과 소비패턴을 고려한 지역 유형화는 정책 목표 및 맞춤형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함

- 생활인구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결과
  - 현재까지 공표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한 결과, 총 6개의 유형이 도출됨

유형		지역수	특징
유형1	단기체류 집중형	12개	관광·레저 목적의 단기 방문 집중지역
유형2	청년 장기체류형	5개	군사 관련 활동 목적의 청년 장기체류 지역
유형3	거점도시형	6개	행정·의료·상업 등의 이용 목적 거점지역
유형4	생산인력 중심형	14개	산업 근로 목적의 중소 거점지역
유형5	신중년 문화여가체류형	19개	문화·여가 체험 목적 소비 지역
유형6	일상적 소비체류형	33개	일상적 소비·체류 중심 지역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화 결과의 활용과 개선방안
  - 지역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생활인구 유형 및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강점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다만,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도별·계절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인구학적 특성이나 체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각각의 대응 전략이 이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행정 역량, 지역 주민의 참여, 민간 협력 등의 요소가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01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데이터



## 생활인구의 정의 및 공표 현황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함
  - 2023년에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3호)」을 고시하여 생활인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작성지침을 마련함
  - 법령에서 정의하는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인구,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구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자, 그리고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체류한 인구를 포함함
  - 즉, '생활인구'는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동·체류하는 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생활인구 데이터는 실험적 통계(2024-002호)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제공됨
  - 생활인구 데이터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자료,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자료, 통신모바일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액, KCB 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는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말 기준 2024년도 1·2분기(1~6월) 산정 결과가 공표되었음



##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발굴

-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특히, 등록인구만으로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 체류인구와 소비활동 정보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데이터가 주목받고 있음
-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유형화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존의 지역 유형화 연구는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생활인구 데이터는 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의 속성(연령대, 체류기간 등)과 소비패턴까지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2024년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인구 데이터가 산정·공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지역 특성 분석 및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02

## 생활인구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 지표 선정 및 군집분석

- 생활인구의 체류 패턴 및 속성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공표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을 유형화함
  - 분석에 활용한 지표는 등록인구·체류인구의 규모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와 함께 체류인구의 구체적인 속성별(연령·체류일수·거주지 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지표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총 19개 지표를 구축함
  - 변수를 표준화한 후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지표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여 군집 간 생활인구 지표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함

〈표 1〉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하는 유형화 지표

구분		지표	단위	기준년월	출처
기본정보		내국인 등록인구 수, 외국인 등록인구 수	명	2024.1~6	통계청
		내외국인 합계 체류인구 수	명	2024.1~6	통계청
		체류인구 배수 <sup>1)</sup>	배	2024.1~6	통계청
체류인구 특성	체류 패턴	1~2일 체류인구 비율, 21일 이상 체류인구 비율	%	2024.1~6	통계청
		평균 체류시간	시간	2024.1~6	통계청
		체류집중성 <sup>2)</sup>	명	2024.1~6	통계청
	인구 유형	타시도 체류인구 비율, 동일시도 체류인구 비율	%	2024.1~6	통계청
		외국인 체류인구 비율	%	2024.1~6	통계청
		20대, 30~50대, 60대 이상 체류인구 비율	%	2024.1~6	통계청
	소비 특성	체류인구 1인 평균 소비액	천원	2024.4~6	통계청
		숙박, 문화여가, 음식점 및 소매 <sup>3)</sup> ,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 <sup>4)</sup> 평일 매출액 비율	%	2024.4~6	통계청

<sup>1)</sup>체류인구수÷등록인구수

<sup>2)</sup>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

<sup>3)</sup>음식점 및 소매(종합 및 전문) 부문 평일 매출액 합계

<sup>4)</sup>보건의료 및 교육 부문 평일 매출액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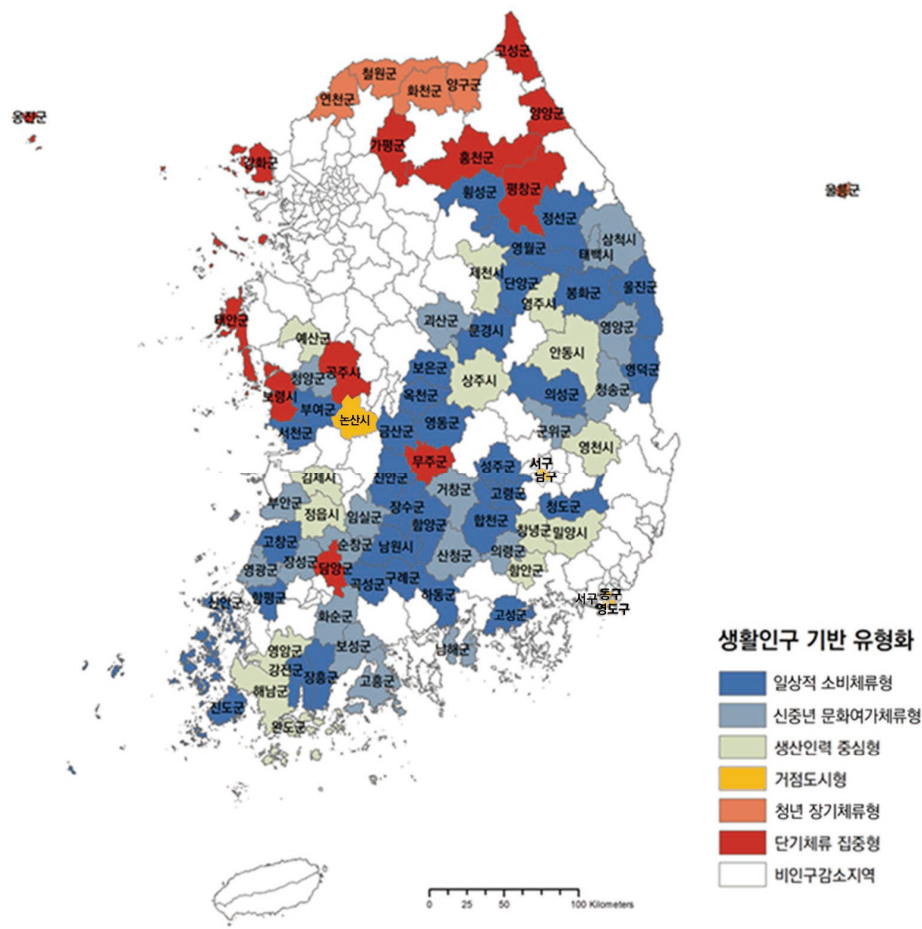
자료: 윤소연 외(202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발간 예정)



##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89개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결과

-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한 결과, 총 6개의 유형이 도출됨
  - (유형1) 단기체류 집중형: 체류인구수, 체류인구 배수, 체류집중성 등이 높은 곳으로, 1~2일의 단기 방문 체류인구의 비율이 높고 외부 유입이 활발한 12개 지역이 포함됨
  - (유형2) 청년 장기체류형: 20대의 체류인구 비율이 높은 유형으로, 타 유형에 비해 등록인구 및 체류인구의 수는 적으나 21일 이상의 체류인구 비율, 평균 체류시간, 숙박 평일 매출액 비율이 높아 장기 체류자가 많은 특징을 보임
  - (유형3) 거점도시형: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으로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소비액, 동일 시도 내 체류인구 비율, 보건의료·교육서비스의 평일 매출액 비율이 높고 평균 체류시간이나 체류집중성이 낮아 지역의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체류인구 유입이 활성화되어 있음
  - (유형4) 생산인력 중심형: 등록외국인수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의 체류인구 비율이 높은 특징을 통해 산업·일자리가 갖춰진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5) 신중년 문화여가체류형: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체류인구와 1~2일 체류인구 비율이 높고,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과 문화여가 평일 매출액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19개 지역이 포함됨
  - (유형6) 일상적 소비체류형: 60대 이상 체류인구 비율, 1~2일 체류인구 비율, 타시도 체류인구 비율 등이 높아 외부 유입이 활발하지만,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이 낮으며 음식업·소매업 등의 일상적 소비가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1〉 1~6월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결과



주: 현재까지 공표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을 유형화한 결과임

자료: 윤소연 외(202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 참고(발간 예정)

〈표 2〉 유형별 생활인구 지표 평균

구분		지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p-value
			n=12	n=5	n=6	n=14	n=19	n=33	
기본 정보		등록인구수(내국인)(명)	53,331	27,047	118,062	87,101	39,123	40,160	0.00
		등록인구수(외국인)(명)	1,413	578	2,763	3,230	772	1,000	0.00
		체류인구수(명)	427,846	124,310	421,534	271,953	177,246	190,994	0.00
		체류인구 배수(배) <sup>1)</sup>	8.78	4.36	3.67	3.11	4.56	4.82	0.00
체류 인구 특성	체류 패턴	1~2일 체류인구 비율(%)	80.9	64.6	68.8	73.6	78.1	78.1	0.00
		21일 이상 체류인구 비율(%)	2.64	8.95	7.66	5.46	3.47	3.45	0.00
		평균 체류시간(시간)	12.1	14.7	10.6	12.4	12.1	12.0	0.00
		체류집중성(명) <sup>2)</sup>	255,384	85,885	74,163	107,347	89,102	116,339	0.00
	인구 유형	타시도 체류인구 비율(%)	79.5	73.4	44.1	62.4	65.6	73.5	0.00
		동일시도 체류인구 비율(%)	20.5	26.6	55.9	37.6	34.4	26.5	0.00
		외국인 체류인구 비율(%)	1.71	1.23	1.82	1.73	1.16	1.24	0.00
		20대 체류인구 비율(%)	12.0	16.5	14.0	8.56	7.75	7.39	0.00
		30~50대 체류인구 비율(%)	52.1	44.9	51.4	54.4	52.5	52.6	0.00
		60대 이상 체류인구 비율(%)	23.2	28.1	24.8	27.1	29.2	29.9	0.00
	소비 특성	체류인구 1인 소비액(천원)	107	113	126	117	126	103	0.01
		숙박 매출액 비율(%)	4.15	5.59	1.13	4.76	2.07	5.14	0.00
		문화여가 매출액 비율(%)	8.85	12.9	4.27	12.5	21.0	8.09	0.00
		음식점 및 소매 매출액 비율(%)	59.8	56.8	50.0	52.7	39.7	62.1	0.00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 매출액 비율(%)	4.83	3.65	30.6	3.33	3.68	4.30	0.03

<sup>1)</sup>체류인구수÷등록인구수<sup>2)</sup>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

주1: 현재까지 공표된 2024년도 상반기(1~6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을 유형화한 결과임

주2: 지표별 높은 값(붉은색)과 낮은 값(푸른색)에 대하여 음영처리

자료: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 생활인구([https://data.kostat.go.kr/nowcast/popul\\_living\\_gender.do?initId=30](https://data.kostat.go.kr/nowcast/popul_living_gender.do?initId=30)) 참고

### 생활인구 유형별 대응전략

-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6개 유형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과 전략 방안을 정리함(〈표 3〉 참고)
  -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생활인구 유형 및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강점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제시함

〈표 3〉 생활인구 유형별 특징 및 전략 방안

유형	지역수	특징	전략
단기체류 집중형	12개	관광·레저 목적의 단기방문 집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시기에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형 관광 콘텐츠, 야간경제 활성화, 오프시즌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집중과 분산 효과를 함께 유도할 필요가 있음</li> <li>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류공간(숙박, 교통) 및 지역기반시설 확충 계획 마련 필요</li> </ul>
청년 장기체류형	5개	군사 관련 활동 목적의 청년 장기체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예: 안보관광자원 등) 및 연계자원을 고려한 단기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 및 활성화 전략 고려</li> <li>젊은 층(군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장기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주거-여가가 연계된 정주 유지 정책 추진</li> </ul>
거점도시형	6개	행정·의료·상업 등의 이용 목적 거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생활권 내 체류인구 유입을 유지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개선, 거점형 생활서비스(의료, 교육, 문화) 확충 등 고려</li> <li>높은 접근성을 활용한 생활권 연계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인프라 개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등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생산인력 중심형	14개	산업 근로 목적의 중소 거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근로 등의 이유로 국내 유입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국어 행정서비스, 문화·교육 지원 정책 등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li> <li>타 유형에 비해 생활서비스(교육, 의료, 소비 인프라)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적 생활서비스 제고 정책 고려</li> </ul>
신중년 문화여가체류형	19개	문화·여가 체험 목적 소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인구, 체류인구의 연령대가 높고, 문화·여가 부문의 매출액과 체류 인구 1인당 소비액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년 및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문화·여가 기반 강화 필요</li> <li>지역별 체류 및 소비패턴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프로그램(문화예술, 스포츠, 취미활동 등) 및 관광, 의료(웰니스), 교육(평생학습)과 연계한 복합형 콘텐츠 개발 등 고려</li> </ul>
일상적 소비체류형	33개	일상적 소비·체류 중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중년 및 단기 체류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외식·소매 콘텐츠(예: 건강식 전문점, 로컬 마켓 큐레이션) 및 지역 브랜드·상품 개발을 통해 일상적 소비를 넘어 '목적성 소비' 유도</li> <li>60대 이상 체류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시니어 친화적인 생활소비 기반(헬스케어, 여가, 생활 편의시설) 조성 및 고령층 특화 상권 조성을 통한 맞춤형 소비 공간 마련</li> <li>체류기간 증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광역 생활권 연계 전략 등 필요</li> </ul>

자료: 윤소연 외(202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발간 예정)

## 03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형화 결과의 활용과 개선방안



## 생활인구 유형화의 정책적 활용

-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유형화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체류인구의 특성과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 목표 및 맞춤형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특히, 인구규모, 체류패턴, 인구 유형, 소비특성 등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에서는 타겟층을 고려한 인프라 확충·운영 계획, 소비 활성화 전략, 유사 또는 상호보완적 특징을 가진 지역 간 연계·협력 등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생활인구 유형화의 한계와 고도화 방안

- 현재 공표된 생활인구 데이터는 일정 기간 내의 체류 패턴을 반영하므로 단기적 트렌드는 파악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변화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본 결과는 2024년도 상반기(1~6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시기별·계절별 변동성이 높은 체류인구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 1년 이상의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역 특성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연도별·계절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인구이동 패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생활인구 데이터는 체류인구의 규모와 특성,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체류 목적(관광, 업무, 교육 등)과 이동 경로 분석 등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하여 정책 활용성이 제한됨
  - 추후 체류인구의 연령대별 비율이나 체류기간 등의 지표 외에 인구학적 특성 및 체류 목적을 보다 세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적용한다면 지역별 유형과 특징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생활인구 유형화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행정 역량, 지역 주민의 참여, 민간 협력 등의 요소가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생활인구는 실험적 통계이므로 정확한 수치보다는 패턴, 경향성, 신뢰 구간 및 추론 가능한 통계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여건 등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4.7)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 '24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 관계부처 합동(2024.10)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 기반 - '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생활인구([https://data.kostat.go.kr/nowcast/popul\\_living\\_gender.do?initId=30](https://data.kostat.go.kr/nowcast/popul_living_gender.do?initId=30))
- ※ 이 브리프는 “윤소연·이소영·박진경·김도형·이원도·김민영·양원탁·김주락(202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 행정안전부(발간예정)”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 내용문의

-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 부연구위원(033-769-9848, syyoony@krila.re.kr)

